

## 제4절 초기철기시대 유적과 유물<sup>650</sup>

### 1. 개관

초기철기시대는 대체로 BC 300년경부터 BC 100년경 연나라의 영향으로 주조철기가 보급되는 단계까지로 보는 견해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청동기 연구자들은 원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는 단계를 따로 분류하여 청동기시대 후기에 편입하는 경향이 높다. 이런 점은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로의 전환과정을 보는 시각의 차이로 일정한 기간 청동기 시대 재지문화가 점토대토기문화와 공존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연구동향 역시 공존시기에 관한 연구[김범철 2001,<sup>651</sup> 정인성 2002,<sup>652</sup> 김승옥 2006,<sup>653</sup> 이수홍 2007,<sup>654</sup> 박진일 2007<sup>655</sup>]가 중심을 이루며, 좀 더 나아가 접변양상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이형원 2005,<sup>656</sup> 신영애 2011<sup>657</sup>]도 있다.

이와 같은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전환기의 변동과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집단의 이주로 도입된 점토대토기유물군, 주거와 취락, 세형동검유물군이 한반도 남부에서 시간-공간상으로 확산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확산과정은 일정 지역에 도입된 점토대토기유물군과 주거 양상이 청동기시대 토착 전통집단의 토기군과 주거를 서서히 대체하는 접촉 및 교체의 과정으로 초기정착지인 중서부 지역에서 시작하여 남한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지리적 확산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남한 전역에서 점토대토기문화의 확산과 수용의 과정을 거쳐 이전 시기의 송국리문화를 대체하게 되는데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변동을 문화접변의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sup>658</sup>

초기철기시대 문화를 이루는 점토대토기 사용집단의 유입은 크게 두 갈래의 경로로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된다고 보고 있다. 먼저 해로를 통해 중서부의 한강과 금강 하류역에 이르는 경로와 압록강 청천강유역에서 원산만을 거쳐 동해안으로 확산되는 경로,<sup>659</sup> 서북지방을

650. 초기철기시대의 시기구분은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며, 편년기준은 신영애(2011)의 시기구분을 따랐음을 밝힌다 ; 申英愛, 2011,『嶺南地方 粘土帶土器 段階 文化接變』,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63-65쪽

651. 金範哲, 2001,「남한지역 후기무문토기문화의 성격연구-서울지역 연구를 위한 시론적 고찰」『서울학연구』16,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652. 鄭仁盛, 2002,「支石墓文化에서 細形銅劍文化로의 移行-낙동강 유역권을 중심으로」『전환기의 고고학(Ⅰ)』, 한국상고사학회

653. 김승옥, 2006,「분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654. 李秀鴻, 2007,「東南部地域 青銅器時代 後期의 編年 및 地域性」『嶺南考古學』40, 嶺南考古學會

655. 박진일, 2007,「점토대토기, 그리고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韓國青銅器學報』創刊號, 韓國青銅器學會

656. 李亨源, 2005,「松菊里類型과 水石里類型의 接觸樣相-中西部地域 住居遺蹟을 中心으로」『湖西考古學』12, 湖西考古學會

657. 申英愛, 2011, 앞 논문, 76쪽

658. 이성주, 2017,「지석묘의 축조중단과 초기철기시대」『대구-경북의 지석묘 문화』, 영남문화재연구 30, 영남문화재연구원, 138~141쪽

659. 박순별, 2004,「요녕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정착 과정」『 금강고고』1, 충청문화재연구원, 37-63쪽

경유한 동해안으로의 유입,<sup>660</sup> 중서부지역에서 출발하여 호남과 남해안을 거쳐 동남해안 일대에 이른다는 견해<sup>661</sup> 등 크게 두 갈래의 경로로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된다고 보고 있다.

표지적인 유물인 점토대토기의 유입시기도 기존에 논의되던 기원전 4세기 보다 앞서 기원전 5세기 후반<sup>662</sup> 또는 기원전 6세기 말~5세기 초<sup>663</sup>까지 소급시키는 견해들도 있다. 이러한 연구 중 영남지역에서 재지 무문토기와 원형점토대토기 문화가 접변한다는 신영애(2011)<sup>664</sup>의 편년안을 수정하여 울진지역의 초기철기시대 시기를 구분하였다. 신영애(2011)는 영남지역으로 점토대토기문화가 도입된 계기는 전국시대 연(燕)의 요서진출과정에서 고조선과의 무력충돌로 인해 (원형)점토대토기 문화를 소유한 고조선 유이민 집단이 한반도로 이주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삼각형 점토대토기 문화가 유입되는 시기는 준왕의 남주와 관련하여 2차 대규모 이주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 시기를 2세기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철기시대 문화의 시기별 흐름은 제1단계(전기)는 재지무문토기+원형점토대토기 문화가 공존하는 기원전 4세기 말~기원전 2세기 전후, 제2단계(중기)는 재지무문토기+원형점토대토기+삼각형점토대토기 문화가 공존하는 기원전 2세기 전후~기원전 2세기 중후반, 제3단계(후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 문화가 정착되는 기원전 2세기 중후반~기원전 1세기 중후반으로 보았다.

한편, 신영애(2011)는 영남지역으로 점토대토기문화가 도입된 계기는 전국시대 연(燕)의 요서진출과정에서 고조선과의 무력충돌로 인해 (원형)점토대토기 문화를 소유한 고조선 유이민 집단이 한반도로 이주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삼각형 점토대토기 문화가 유입되는 시기는 준왕의 남주와 관련하여 2차 대규모 이주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 시기를 2세기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울진 지역에서는 덕천리 372유적, 봉산리 494-1유적, 정명리 289-1유적 등 3개소의 유적이 확인되고, 주거지와 수혈 등 생활유구가 일부 보고된 것이 전부이다. 이 중 봉산리 494-1유적, 정명리 289-1유적은 출토유물 중 원형점토대토기 및 두형토기, 단면 사다리꼴의 유구 석부, 투박한 방형돌기의 검파두식의 특징으로 미루어 초기철기시대 전기인 기원전 4세기 말~기원전 2세기 전후로 판단된다. 그리고 덕천리 372유적의 삼각형 점토대 토기와 두형토기, 파수로 보아서는 초기철기시대 후기인 기원전 2세기 중후반~기원전 1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된다.

660. 박영구, 2015, 「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의 구조와 전개」『우행 이상길교수 추모논문집』, 진인진, 258~289쪽

661. 박진일, 2013,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62. 朴榮九, 2015, 앞 논문, 65쪽

663. 박진일, 2007, 앞 논문, 101쪽

664. 申英愛, 2011, 앞 논문, 65쪽

이와 같이 울진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조사사례가 극히 적고 조사자에 따라 청동기시대 후기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문화상 복원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신석기시대 이래 동해안 루트를 따라 내려오는 선사문화의 전개양상으로 미루어 보면, 울진 전역의 하천과 바닷가를 따라 광범위한 범위로 초기철기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2. 유적과 유물

### 1) 울진 덕천리 372유적(蔚珍 德川里 372遺蹟)<sup>665</sup>

유적은 북면 덕천리 일원으로 울진-죽변-임원-삼척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인 구 7번 국도변에 있다. 울진 원자력발전소 후문 진입로 서쪽 능선으로 덕천리 마을에서 덕금골로 이어지는 진입로의 동편 곡간지와 구릉지 및 충적평야 지역이 포함되는 곳이다. 조사구역 능선 상단은 원자력발전소 진입로가 남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소구릉지는 덕천리 고분군과 연결되는 능선부에 해당한다.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신울진원전건설부지내 유적 조사III구역7지점의 E구역에서 수혈 4기(9·13~16호 수혈)가 확인되었다. 수혈은 모두 부정형의 형태이며, 규모는 길이 2.6~8.3m, 너비 1.4~5.2m, 깊이 0.2~0.5m 정도이다. 내부에서는 무문토기 호, 우각형·봉형 파수, 단면 삼각형의 점토대토기, 두형토기 대각, 무문토기 저부 등이 출토되었다. 동 구역의 제9호 수혈도 수혈의 성격은 일정한 범위를 이루며 밀집되어 위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주거 등 생활유구로 추정된다.

조성시기는 구연단면 삼각형의 점토대토기, 실심형 대각의 두형토기, 우각형·봉형 파수 등의 토기류로 보아 초기철기시대 후기인 기원전 2세기 중후반 ~ 기원전 1세기 중후반 경으로 편년해볼 수 있다.

### 2) 울진 봉산리 494-1유적(蔚珍 烽山里 494-1遺蹟)<sup>666</sup>

유적은 기성면 봉산리 494-1번지 일원으로 울진공항 건설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태백산맥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이 해안에 이르러 낮은 구릉을 형성하는데, 해발 40~70m 정도의 낮은 구릉 남사면부에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유적은 남북으로 형성된 2개의 가지능선 중 서쪽 능선의 사면부에서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초기철기시대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로 보고된 유구이다. 주거지는 평면 장방

665. 성립문화재연구원, 2012, 앞 책

666. 江陵大學校博物館, 1999, 앞 논문 ; 강릉대학교박물관, 2000, 앞 책 ; 中央文化財研究院, 2002, 앞 책 ; 蔚珍郡·慶尚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앞 책, 324쪽

형으로 길이방향은 남-북향으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규모는 잔존길이 6.4m, 너비 5.5m, 깊이 0.46m 정도이다. 바닥은 풍화암반의 정지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부분적으로 소토가 편평하게 남아있어 불다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시설은 벽의 가장자리와 내부에서 주혈 22개가 확인되지만 정형성을 찾기는 어렵다.

유물은 두형토기 대각부 1점과 무문토기 저부+동체부편 1점, 지석으로 추정되는 석기 1점이 출토되었다. 이외 주거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표에서 원형점토대토기 1점과 호의 동체+저부편이 수습되었는데, 동시기로 추정된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원통형 대각의 두형토기와 지표채집된 원형점토대 토기로 보아 초기철기시대 전기인 기원전 4세기말~기원전 2세기 전후로 편년해볼 수 있다. 인접한 정명리 289-1유적과도 동일한 시기로 보인다.

### 3) 울진 정명리 289-1유적(蔚珍 正明里 289-1遺蹟)<sup>667</sup>

유적은 기성면 정명리 289-1번지 일원으로 울진 국도7호선 확장구간에서 확인되었다. 유적은 어티마을'앞을 지나는 국도 7호선의 동편에 있는 정명버스정류장 북쪽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유적에서는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1기와 야외노지 2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 타원형으로 길이방향은 남서-북동향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5.95m, 너비 3.50m, 깊이 0.30m 정도이다. 내부시설로는 노지 3개, 저장구덩이 2개, 초석 1매 등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3개가 확인되었는데, 중앙과 위치한 원형노지는 수혈식으로 크기는 직경 82cm, 깊이 17cm 정도인데, 이 노지의 가운데에는 중앙부 기둥으로 보이는 직경 20cm, 깊이 84cm 정도의 주혈이 확인되어 기둥이 없어진 후 조성된 노지인지 아니면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 진흙을 채웠는지 성격이 불분명하다. 남쪽에 위치한 원형의 수혈식노지는 직경 82~84cm, 깊이 13~17cm 정도이며, 서쪽에 위치한 노지는 지상식으로 길쭉한 소토(붉은진흙)층만 남아 있어 불다짐의 흔적인지 노지인지는 불분명하다. 저장구덩이는 서쪽 벽면에 인접하여 2개가 확인되었는데, 구덩이①의 크기는 직경 60cm, 깊이 56cm 정도로 위가 좁고 바닥이 약간 넓은 플라스크 모양을 하고 있으며, 구덩이②의 크기는 직경 32cm, 깊이 15cm 정도이다. 유물은 단면원형 점토대토기를 비롯한 다량의 무문토기, 방추차, 어망추, 마제석부, 반월형 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야외노지는 2기가 조사되었다. 야외노지 1호는 주거지의 북쪽으로 20m 정도 떨어져 위치하는데, 직경 50cm 정도로 할석 5매를 돌린 원형의 위석식 노지 1개와 서쪽으로 1m 정도 떨어져 노지보다 40cm 높은 부분에서 길이 201cm, 너비 70cm, 두께 15cm 정도의 소토층이 확

667. 안동대학교박물관, 2008,『울진 사동·정명·월송리 유적』

인되었다. 노지 주변에서는 어망추, 단면원형 점토대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야외노지 2호는 주거지의 북쪽 6m 지점에서 노출되었다. 평면 원형의 수혈식노지로 내부에는 두텁게 소토층이 형성되어 있다. 크기는 직경 80cm, 깊이 8cm 정도로 주거지에서 확인된 노지와 동일한 형태이다. 노출과정에서 다량의 토기편과 어망추, 석기가 출토되었다.

이로 보아 야외노지 2기는 주거지와 관련된 유구로 추정된다. 이 일대는 경작지로 개간을 하거나 경작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주거지가 훼손되고 유물들이 주변으로 흘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일대에는 적어도 3기 이상의 주거지로 이루어진 소규모 취락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유적에서 보고된 토기류는 무문토기 71점으로 저부편 43점, 동체부편 16점, 구연부편 12점이다.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구연부 12점 중 6점은 단면 원형의 점토대토기와 환상(또는 설상)으로 위에서 아래로 투공된 파수가 붙은 동체부 1점이 있다. 어망추는 주거지 내부와 주변에서 28점이 출토되었는데, 구형에 가운데 투공이 된 것들이다. 석기류는 반월형석도, 유구석부, 일단병식석축, 결합식 마제석검(또는 석창), 합인석부 등이 출토되었다. 한편, 주거지 주변에서 철 성분의 많이 포함된 청회색의 검파두식<sup>668</sup> 1점이 출토되었는데, 올록볼록한 반달모양으로 손으로 쥐었을 때 5개의 손가락에 놀려 계곡을 만든 것과 같은 산모양으로 가공했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단면원형 점토대 토기와 환상의 파수, 단면 사다리꼴의 유구석부, 투박한 방형돌기의 검파두식의 특징으로 보아 초기철기시대 전기인 기원전 4세기말 ~ 기원전 2세기 전후로 편년해볼 수 있다. 인접한 봉산리 494-1유적과도 동일한 시기로 보인다.

배성혁

668. 초기철기시대를 청동기시대 후기 원형점토대토기 단계로 설정하며, 정명리유적 출토 검파두식은 산형(山形)으로 일단병식 석축과 공반출토 되는 점을 들어 동해안에서 가장 이른 단계의 검파두식으로 산정하고 있다(朴榮九, 2015, 앞 논문, 64쪽). 한편 보고서에서 검파두식의 재질을 철성분이 50% 포함된 금속제로 판단하고 있지만, 주물보다는 깍은 것으로 보여 철광석을 가공했을 가능성도 있다.